

◆ A Survey of Reading Trends in Korea

초·중·고교생 및 성인의 독서실태(하)

김 경 일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상담관)

d. 성인의 독서경향(감명 깊게 읽은 도서)

성인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실제 독서하고 있는 1,851명에게 1년동안 독서한 도서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생각하는 도서의 저자와 서명을 조사자료에 의해서 집계해 보니까 소도시 남자가 142종, 여자가 67종이고, 중도시의 남자는 80종이고, 여자는 29종이다. 대도시에서는 남자가 71종이고, 여자는 61종으로 많은 종류의 도서명이 집계되었으나 이것을 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순위 3위까지 추려서 도시별로 도서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도시)

남 자			여 자		
순위	저 자	도 서 명	순위	저 자	도 서 명
1	나관중	삼 국 지	1	모파상	여자의 일생
2	토스토프 엠플스키	죄 와 벌	2	하아디	테 스
3	유주현	조선총독부	3	이광수	사 랑

(중도시)

남 자			여 자		
순위	저 자	도 서 명	순위	저 자	도 서 명
1	모파상	여자의 일생	1	이광수	흙
2	토스토프 엠플스키	죄 와 벌	2	헤르만 ·헷세	테 미 안
3	톨스토이	부 활	3	톨스토이	부 활

성인들이 감명깊게 읽은 도서의 실태를 보면 소도시에서는 남자의 1위가 "삼국지" 2위가 "죄와벌"이고, 3위는 "조선총독부"이다. 여자의 1위는 "여자의 일생"이고, 2위는 "테스", 3위는 "사랑"이다. 중도시는 남자의 1위가 "여자의 일생"이고, 2위는 "죄와벌", 3위는 "부활"이다. 여자의 1위는 "흙"이고, 2위는 "데미안", 3위는 "부활"이다. 대도시의 남자는 "자고가는 저 구름아"가 1위이고, 여자는 "여자의 일생"이다. 2

(대도시)

남 자			여 자		
순위	저 자	도 서 명	순위	저 자	도 서 명
1	박종화	자고가는 저 구름아	1	모파상	여자의 일생
2	이호원	태평양 전쟁	2	박계형	머무르고 싶 었던 순간들
3	나관중	삼 국 지	3	헤르만 ·헷세	테 미 안

위는 남자가 "태평양전쟁"이고, 여자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고, 3위는 남자가 "삼국지", 여자는 "데미안"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20세~30세가 비교적 많다는 점에서 감명깊게 읽은 도서들의 경향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경향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7) 독서에 대한 가치평가 실태

a. 중학생

독서자료인 도서와 신문, 시각적인 등작을 필요로 하는 "만화와 사진화보" 시청각적인 작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영화, 텔레비, 라디오"등의 매스컴을 중학생들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접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

종 별	학년별		
	1	2	3
	%	%	%
(1) 신문을 읽는다	18.34	18.66	23.42
(2) 책을 읽는다	77.59	75.55	49.09
(3) 만화와 사진화보를 본다	2.10	4.50	2.43
(4) 텔레비를 본다	4.90	5.79	4.76
(5) 영화를 본다	2.38	3.73	4.76
(6) 라디오를 듣는다	10.22	10.42	7.97

<표-12>의 결과를 해석해 보기로 한다.

• 신문을 읽는다

“신문이 도움이 된다”는 회답들은 1,2학년은 거의 비슷한 비율이나 3학년에서는 23.42%로서 신문이 사회의 공기라는 인식이 1,2학년에 비교하여 높아지고 있다.

• 책을 읽는다

“독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회답은 전학년을 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1,2학년에 비교해서 3학년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낮아지는 원인은 상급하고 입시를 위한 준비때문이며, 매스미디어속에서도 독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 만화와 사진화보를 본다

눈으로 보는 자료로서 만화와 사진화보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최하위로서 매우 좋은 현상이다.

• 텔레비를 시청한다

“텔레비 시청이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높고, 3학년에서 낮아지고 있다. 남녀별 실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시청하고 있다.

• 영화를 본다

“영화가 도움이 된다”는 실태는 1학년에 비해서 2,3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상승되고, 남녀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많다.

• 라디오를 듣는다

라디오의 청취율은 텔레비보다 많이 보급되어 있다. 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회답률이 전체적으로 3위에 속한다. 학년별 실태는 1,2학년에서는 비율이 비슷하지만 3학년에서는 낮아지고 있다.

이상의 매스 미디어속에서의 중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가치관을 볼 때 영상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독서에 대한 가치 비중은 매우 높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 교교생

고교생들의 생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독서자료로서의 “도서와 신문” 또 시각적인 작용을 필요로하는 “만화와 사진화보” 그리고 시청각적인 작용이 수반되는 “영화와 텔레비, 라디오”등의 매스콤속에서 독서를 어느정도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13>와 같다.

<표-13>에 의한 조사사항의 증별을 근거로 해석해 보기로 하겠다.

• 신문을 읽는다.

고교생들이 “신문이 도움이 된다”라는 비율을 보면 3학년이 45.66%로서 1,2학년에 비교하여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

<표-13>

종 별	학 년			
	비 률	1	2	3
		%	%	%
(1) 신문을 읽는다		27.18	29.65	45.66
(2) 책을 읽는다		74.81	70.64	58.38
(3) 만화나 사진화보를 본다		1.98	0.78	0.81
(4) 텔레비를 본다		4.12	3.23	3.84
(5) 영화를 본다		5.19	6.36	5.25
(6) 라디오를 듣는다		7.18	7.73	6.87

지 자기들의 생활에서 신문이 불가분의 요소로서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신문이 사회정보를 입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중학교 3학년의 23.42%와 비교해 볼 때 약 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 책을 읽는다.

독서하는 것이 자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실태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학년별 실태를 보면 3학년은 1,2학년에 비해서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만화와 사진화보를 본다.

1학년에서는 약 2%정도의 실태이지만 2,3학년에서는 비율이 극히 적어지고 있다.

• 텔레비를 본다.

“텔레비의 시청이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는 1,2학년보다 3학년이 약간 높은 실태이다.

• 영화를 본다.

영화 관람이 도움이 된다는 실태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보다는 2,3학년이 높고 남녀별로는 여자(1학년 1.78%, 2학년 4.97%, 3학년 4.21%) 보다 남자(1학년 6.96%, 2학년 8.20%, 3학년 5.78%)가 높은 편이다.

• 라디오를 듣는다.

1,2학년에 비해서 3학년은 낮은 편이다. 이상의 실태 해석에서 영상문화의 발전속에서도 고교생들이 독서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결과라고 하겠다.

(8) 독서시간 실태

a. 국민학교 아동

독서시간의 실태는 “30분 이내”가 4학년이 34.95%, 5학년이 29.60%, 6학년이 31.42%로서 가장 비율이 많고, 그다음 순위는 “1시간 이내”가 4학년이 24.23%, 5학년이 20.75%, 6학년이 23.70%이다. 학년별 조사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14>

소요시간	학년별 비율		
	4 학년	5 학년	6 학년
	%	%	%
0 분	7.65	9.65	9.32
30분 이내	34.95	29.63	31.42
1시간 이내	24.23	20.75	23.70
2시간 이내	11.73	8.49	13.18
3시간 이내	3.44	2.22	4.53
3시간 이상	1.79	1.06	1.73
무 답	16.15	28.19	16.12

b. 중학생

중학생들의 독서시간의 실태를 학년별로 보면 전학년을 통하여 “30분이내”가 가장 비율이 높다. 그 다음으로서는 학년별 비율에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즉 1학년은 “2시간이내”가 8.54%이고, 2학년은 “1시간이내” 24.85%, 3학년은 “1시간이내”가 20.89%이다. 학년별 실태는 <표-15>와 같다.

<표-15>

소요시간	학 년		
	1	2	3
	%	%	%
0 분	14.01	14.29	15.74
30분 이내	30.67	28.57	30.61
1시간 이내	8.40	24.85	20.89
2시간 이내	8.54	8.11	8.07
3시간 이내	3.22	4.50	4.28
3시간 이상	1.82	3.47	3.69
무 답	33.33	16.22	16.72

c. 고교생

고교생의 독서시간도 중학생의 독서시간과 마찬가지로

<표-18>

소요시간	도시별		중 도시		소 도시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비 률					
	%	%	%	%	%	%
30 분 까 지	20.78	13.69	21.65	13.68	21.17	11.36
30 분 ~ 1 시 간	26.82	29.17	24.23	22.22	26.80	28.03
1 시 간 ~ 2 시 간	22.59	31.55	18.81	29.91	25.08	27.65
2 시 간 ~ 3 시 간	11.44	11.31	11.34	17.09	9.56	11.36
3 시 간 이 상	8.73	9.52	14.18	6.84	8.93	10.24
무 답	9.64	4.76	9.79	10.26	8.46	11.36

로 “30분이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시간이내”이다. 따라서 고교생들이 가정에서 독서하는 시간은 평균 “30분~1시간”정도임을 알 수가 있다. 학년별 실태는 <표-16>과 같으며 1학년보다는 2,3학년이 독

<표-16>

소요시간	학 년		
	1	2	3
	%	%	%
0 분	12.67	10.08	13.54
30분 이내	30.08	27.78	28.89
1시간 이내	21.53	25.83	17.98
2시간 이내	10.08	10.49	4.65
3시간 이내	3.05	3.72	1.61
3시간 이상	3.82	5.09	1.61
무 답	18.78	16.83	31.72

서시간을 적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d. 성 인

성인의 독서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30분~1시간”이 26.38%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시간~2시간”이 24.59%이다. 독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소요시간	비 률
	%
30 분	18.72
30 분 ~ 1 시 간	26.38
1 시 간 ~ 2 시 간	24.59
2 시 간 ~ 3 시 간	11.12
3 시 간 이 상	10.07
무 답	9.12

독서시간 실태의 도시별 남녀별은 <표-18>과 같다.

(9) 독서환경 조성실태

a. 국민학교 아동

가정의 독서환경 조성 실태는 조사대상 지역이 도시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등(현광등)시설은 4학년이 79.34%, 5학년이 64.19%, 6학년이 89.34%로서 가장 높으나, 이와 반대로 아직도 호롱불을 사용하는 것이 4학년 4.46%, 5학년이 2.90%, 6학년이 2.26%나 있다.

도서(교과서, 잡지외의)의 소장 실태는 10권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4학년이 50.38%, 5학년이 31.85%, 6학년이 52%이다. 공부방의 사용 실태는 “혼자 쓴다”가 4학년이 11.48%, 5학년이 11.78%, 6학년이 13.71%이고 “같이 쓴다”는 4학년이 45.66%, 5학년이 44.40%, 6학년이 61.38%로서 전체 어린이들의 약 반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책상과 의자는 4학년이 67.98%, 5학년이 53.09%, 6학년이 65.38%로서 반이상의 어린이들이 독서하기 위한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있다.

b. 중, 고교생

중학생의 가정에서 전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1학년 70.73%, 2학년 88.80%, 3학년 84.64%이고, 고교생은 1학년이 90.38%, 2학년이 81.02%, 3학년이 91.72%이다. 공부방은 중학생의 경우 “혼자쓴다”가 1학년이 20.17%, 2학년이 21.62%, 3학년이 33.03%이고, “같이쓴다”는 1학년이 49.16%, 2학년이 51.35%, 3학년이 53.83%이다. 고교생의 경우 “혼자쓴다”는 1학년이 19.54%, 2학년이 33.27%, 3학년이 24.65%이고 “같이쓴다”는 1학년이 65.65%, 2학년이 52.74%, 3학년이 56.36%로서 중, 고교생들의 독서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장소 실태는 약 반수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의 소장(10권 이상) 실태는 중학생 1학년이 55.88%, 2학년이 55.21%, 3학년이 62.10%이고, 고교생은 1학년이 77.40%, 2학년이 69.66%, 3학년이 69.70%로서 중학생보다 고교생들이 소장실수가 많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의 소유 실태는 중학생 1학년이 75.49%, 2학년이 85.20%, 3학년이 83%이고 고교생은 1학년이 88.85%, 2학년이 89.82%, 3학년이 87.88%를 소유하고 있다.

이상의 독서환경 실태의 조사 결과에서 볼 때 공부방의 공동사용이 전체적으로 약 반이상이 된다는 사실은 자연히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학교도서관의 증설과 확충은 물론이지만 공공도서관의 증설도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다.

(10)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

a. 국민학교 아동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를 “무관심” “몰이해” “적극성”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칭찬을 해 주신다”가 1위이고, 2위는 직접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좋은 책을 읽어라”로서 1위와 2위의 순위에 속하는 관심도로 보아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독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들이 남자 12.86%, 여자 9.88%나 되고 독서에 대한 “무관심”태도로서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가 남자 22.13%, 여자 22.29%로서 거의 동일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독서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의 학년별 실태는 <표-19>와 같다.

<표-19>

내용별	학 년		
	비 율	4	5
	%	%	%
(1) 책 같은 것은 읽지 말고 공부나 하라	10.08	12.93	10.65
(2) 곧 일을 시킨다(책을 읽으면)	2.93	0.96	2.80
(3)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25.76	19.02	22.90
(4) 어떤 것을 읽고 있는지 보기만 하시고 가만이 계신다	19.98	12.36	16.38
(5) 그런 책을 읽지 말고 좋은 책을 읽으라고 하신다	31.50	31.37	35.42
(6) 칭찬을 하신다	42.98	34.46	31.96
(7) 기 타	9.18	9.75	9.72

b. 중학생

중학생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를 남녀별로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남자 32.27%, 여자 26.58%)가 똑같이 1위이고, 학년별 실태에서도 같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2위로서는 “그런 책을 읽지 말고 좋은 책을 읽어라”는 적극적인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3위는 학년별에서 볼 때 “칭찬을 한다”의 실태이다. 학년별 실태는 <표-20>과 같다.

중학생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용별의 (3)과 (4)의 공통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 정도가 “무관심”한 태도이고, (5)와 (6)이 공통하다는 면에서 이 두 가지의 관심도를 합하면 전체에서 반정도는 독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c. 고교생

고교생들의 독서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실태는 전학

<표-20>

내용별	학년별		
	비율	1	2
	%	%	%
(1) 책 같은 것은 읽지 말고 공부나 하라	10.50	12.61	16.72
(2) 곧 일을 시킨다(책을 읽으면)	2.38	1.93	1.55
(3)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0.39	30.89	28.86
(4)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보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	17.79	19.09	20.80
(5) 그런 책을 읽지 말고 좀더 좋은 책을 읽으라	28.01	28.96	21.96
(6) 칭찬을 해주신다	27.17	22.91	22.91

년을 통하여 “아무 말도 안한다”가 가장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이 “가만히 계신다”이다. 이와 같은 관심도는 초중학생들의 실태와는 달리 적극적인 지도가 없음을 입증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자주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관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학년별 실태는 <표-21>과 같다.

<표-21>

반응	학년별		
	비율	1	2
	%	%	%
(1) 책 같은 것을 읽지 말고 공부나 하라	14.04	14.48	13.54
(2) 곧 일을 시킨다(책을 읽으면)	1.68	1.39	1.41
(3)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3.74	43.64	47.71
(4)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보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	23.82	24.46	19.80
(5) 그런 책을 읽지 말고 좋은 책을 읽으라고 하신다	18.92	15.85	14.14
(6) 칭찬을 해주신다	7.79	5.77	4.04

3. 요약 및 제언

(1) 국민학교

a.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만화독서 경향은 4학년에서 5,6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조사결과 남자(71%) 여자(61%)의 어린이들은 월 5권~10권씩을 보고 있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

b. 만화를 제외한 교양도서의 독서경향은 남자(86%), 여자(87%)로서 월 평균 5권이내를 읽고 있는 어린이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만화의 독서비율보다 높다.

c. 독서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첫째가 “놀이때문”이

고 둘째는 “책읽는 것이 싫다”이며 세째는 “공부때문에”임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독서하지 않는 주요원인이 “놀이때문”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어린이에게는 독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기쁨을 깨닫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된다.

d. 국민학교 4, 5, 6학년 어린이들이 즐겨 많이 읽는 도서들은 “소년소녀세계명작”과 “천기류”들로써 독서경향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대개가 외국의 작품이 많고 우리나라의 작품들을 비교적 적게 읽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민족적인 감정을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e. 독서의 동기에서 볼 때 전체 어린이가 “책이름”에 매혹되고 있으므로 독서의 동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백하지 못하다. 도서의 내용적인 가치면에서 선택되고 동기유발이 부족하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과를 통한 독서동기 유발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결과에서 오는 현상이다.

f. 독서하기 위한 책의 입수방법은 학교문고나 학교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실태도 4, 5, 6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이용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학교문고나 학교도서관이 학교에서의 독서지도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산 증거이다. 그리고 대본소의 이용도는 고학년으로 감에 따라 적어지고 있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극히 적은 편이다.

g. 어린이들의 1일 독서시간은 30분이내가 가장 많으며 이 시간은 텔레비나 라디오의 1일 시청시간과 똑같은 양상이다.

h. 일요일 가정에서의 자주적인 독서실태는 4학년들은 독서를 하고 있으나 5,6학년은 친구들과 노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i. 독서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은 “칭찬을 해준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들의 어린이에 대한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j. 가정에서의 독서환경 조성은 전체적으로 30%정도가 10권이상의 도서를 가지고 있고 책상, 의자는 70% 이상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서자료를 도서의 소장은 매우 미약한 실태이다.

(2) 중학교

a. 중학생들의 독서경향은 1,2학년에서 어느 정도 독서를 하고 있으나, 3학년에서 독서하지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 2학년에

서 2권을 읽고 있으나 3학년에서 1권을 읽고 있다.

b. 중학생들이 독서하지 않는 원인은 전학년이 공통적으로 “공부때문에” 독서를 못하며 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c. 독서의 동기는 1,2학년에서는 국민학교의 독서동기와 마찬가지로 “책이름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매혹되고 있지만 3학년에서는 그간의 독서경험을 토대로 “오래 전부터 유명한 책”이라는 동기가 되고 중학교에서는 학년의 변화에 따라 독서의 동기가 3학년에서는 내용면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

d. 독서하는 증별은 1,2학년에서는 소년소녀세계명작과 전기류를 많이 읽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 낮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는 충분한 전기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도 기인될 것이다. 전기를 중학생들이 읽도록 한다는 것은 아직도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확고한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청년기의 학생들이 어떤 숭배인물을 찾아서 자아를 확립시켜 나가는데 뒷바침으로서 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전기문의 독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1,2학년에서의 독서 증별에서 탈피하여 성인용도서로 전향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대문학도 많이 읽지만 이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적인 감각에 접근하기 위하여 최근의 작품들도 많이 읽고 있다.

e. 도서입수방법은 1학년에서는 비교적 많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를 입수하여 독서라는 것을 학교도서관의 도서가 정선된 도서들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일이며 중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이용실태에서 학교도서관에서 보다 많이 학생들에게 책을 대출하는 서비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f. 중학생들이 감명깊게 있고 있는 도서의 증별은 한국문학, 세계명작, 전기류 등으로서 국민학교와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g. 중학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독서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가를 보면 전체의 50% 정도는 회답하기 않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하여 계획성을 가지고 독서하는 학생은 50%밖에 안된다.

h. 중학생들이 학교공부, 라디오와 텔레비, 신문, 독서 등 네가지 중에서 1,2학년에서는 독서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3학년에서 중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입시준비때문에 독서하지 못한다는 독서 기피 이유에서도 수궁이 가는 문제라고 하겠다.

i. 중학생들의 1일 독서시간은 “30분이내”이며 이 시

간은 텔레비와 라디오의 시청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다.

j. 중학생들의 가정독서환경은 60%가 10권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85%가 책상과 의자를 소유하고 있다.

k.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3학년에서는 독서보다는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3) 고등학교

a.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경향은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독서하는 학생이 적어지는 경향이고 1개월 독서량은 2권 독서하고 있다.

b. 독서하지 않는 이유는 1, 2학년보다 3학년 전체 학생이 공부때문에 독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나 이 이유를 학생들이 잘못 인식하여 메스컴의 발전에 의해서 독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인간형성의 찬스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고가 굳어질 열려가 있으며 또한 구김살 없이 받아들인 인생의 지침이 고교생들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볼 때 고등학교에서도 독서지도를 통하여 3학년에서도 독서를 계속하여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직접, 간접의 경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c. 학생들의 독서동기 유발은 중학교 3학년에서 동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도서의 내용적인 면에서 흥미가 유발되는 것이 가장 많으며 또 친구로부터의 권유에도 동기를 가지게 된다. 독서의 동기는 학생들의 성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d.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고있는 도서의 종류는 번역물인 세계문학작품을 많이 읽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학작품도 장편보다는 단편집을 많이 읽고 있다. 소위 출판사에서 베스트 셀러라고 하는 작품도 많이 읽고있는 실태이다.

e. 학생들이 독서하기 위한 도서의 입수는 1학년은 학교도서관에서 대출하고 2, 3학년에서는 친구로부터 빌려서 읽는 학생이 많다. 학교도서관의 이용은 권장할 일이지만 친구들간에 교류되는 도서는 양서만이 아니고 악서도 교류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시 않을 수 없다.

f. 고교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도서들은 3학년에서는 현대작품에서 고전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신곡” “플라톤의 전집”과 “국가론” “실낙원”등을 들수가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독서경향이며 중학교에 비교하여 어느정도 계획성 있는 독서라는 것

을 엿보이게 한다.

g.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신문, 라디오, T.V. 영화 등과 독서와를 비교해 볼 때 고교생들의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1,2학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3학년에서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 이유는 역시 대학입학시험의 준비때문에 독서할 의욕이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h. 고교생들의 가정에서 독서를 위한 소요시간은 1일 30분이며 공부하는 시간은 1, 2학년은 1시간이내 3학년은 3시간이상이 가장 많다. 따라서 독서시간은 적고 공부시간이 많다는 결과이다. 특히 휴일인 일요일 날에도 전한년을 통하여 독서보다는 학교공부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다.

i. 고교생들의 가정독서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교과서 참고서 이외의 독서를 10권이상 소장하고 있는 가정은 70%정도나 된다. 책상과 의자는 거의 대개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j. 고교생들의 독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는 아무 말도 안하면서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비율이 많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의사가 아닐까도 느껴진다.

(4) 성인의 독서실태

a. 성인들의 독서경향은 60%정도는 독서를 하고 있다고 보겠다 40%정도는 독서를 하지 않는 실태이다. 잡지의 독서경향은 가끔 읽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일반 교양도서의 독서도 보통정도가 도시별, 남녀별 차이없이 가장 많다. 구독하는 잡지는 남자는 “신동아”이고 여자는 “여성동아”들이다. 1년간의 평균 독서량은 1개월의 1권씩 독서하는 실태이다.

b. 성인들이 국내 출판물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명 깊게 읽는 도서의 종별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종별실태와 비슷한 현상으로서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성인들이 읽는 도서의 대부분이 문학작품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의 도서인 백

과사전, 기타 참고도서의 이용은 매우 낮다.

c. 성인들의 도서입수 방법은 직접 서점에서 구입하여 입수하는 것이 가장 많으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실태이다.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인데도 마을문고의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주변 가까히 있으므로서 도서입수의 제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에게 독서의욕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쉽게 독서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즉 도서관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d. 성인들의 독서목적은 교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와 직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하고 있으며 독서의 목적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e. 성인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의 동기는 신문 잡지의 서평과 신간소개를 보고,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동기는 매우 좋다고 하겠으나 문제점은 서평으로 하여금 신뢰성이 높도록 충실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f. 성인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우리나라의 현대문학 작품과 외국의 명작들이지만 국내작품보다 외국작품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다. 소위 베스트셀러의 작품에만 쫓리는 경향은 많지가 않다.

g. 도서구입비의 실태는 1개월 평균 130원~900원 정도이고 월간지는 370원~400원 주간지는 110원~170원 신문은 246원~350원 정도이다.

h. 성인들 하루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문이 30분이내, 도서 및 잡지가 30분~1시간, 라디오 청취가 30분까지, T.V의 시청은 30분~1시간으로서 독서시간과 T.V. 시청시간과 동일하며 T.V. 시청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시청하고 있다.

i. 성인들은 사회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정보 입수 방법은 첫째가 신문이고 둘째는 라디오 셋째는 텔레비의 순서로 되어있다.

편집자주 : 이 논문은 1971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상담에서 실시한 “독서실태조사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